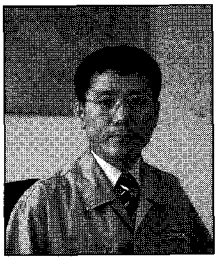
2003 포장기술사

>>>

체계적인 이론 확립을 통한 전문 포장인이 될 터

포장기계 종사자들의 기술사 도전에 본보기가 되길



김 동 환
LEEPACK 영업부장

지난 달 9일 산업인력공단은 제69회 기술사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이 중 포장기술사는 5명이다. 이번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김동환 LEEPACK 영업부장은 "앞으로 기술사로써의 포장 발전에 주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장 기술사는 포장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자격증인 만큼 포장분야 전반적인 기술을 두루 섭렵해야 하고 특히 기계 분야에 대한 참고 자료가 미비한 탓에 기계 업계에 종사자들은 도전하기 조차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합격의 기쁨을 맛본 김동환 부장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그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전을 하게 됐으며 이에 이번 기술사 합격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포장이란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산업으로 포장 기계만을 안다고 해서 포장 전반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이 때문에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이번 기술사에 도전을 하게 됐으며 포장기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국내 포장기계 분야가 낙후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김동환 부장은 "국내 포장기계 분야는 예전과는 달리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포장기계 분야는 영세 규모이다 보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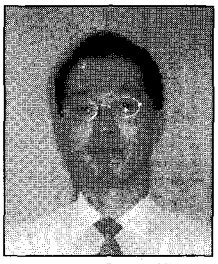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이 없으면 당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뭔가를 꼭 해내겠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사 합격을 통해 "예전에 좋지 않았던 국내 포장기계에 대한 선입견을 전환시키고 포장산업 발전에 한 몫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1983년 LEEPACK에 입사해 줄곧 포장기계 분야만을 고집해 오고 있으며 2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앞으로 김동환 부장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두루 섭렵, 포장기계 뿐만 아니라 포장 전문인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내길 기대하며 그 활약에 주목해 본다. ko

>>>

체계적인 포장 기술 정립에 주력

포장업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김 기 범
(주)이생 기술연구소 차장

이번 제69회 기술사에 합격한 김기범 차장은 "이번 기술사 합격을 통해 포장기술인으로써 포장 발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듯 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김기범 차장은 포장관리사와 일본 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이론을 전문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이번 포장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단편적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앞으로 더욱더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포장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중 김기범 차장은 참고 자료의 부족과 기업과 기업간의 정보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포장학회나 포장기술사회, 관련 포장단체 및 포장업계에서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경험과 업체 Know-How 성격의 업무가 많다보니 포장업계의 정보공유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기술정립에 있어서 타 분야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내 포장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포장업체의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에 대한 투자는 물론 세계의 포장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포장인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포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하고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포장 기술사 자격증일 것이다.

김기범 차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자격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술사로써 포장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 기술사들이 각 개인의 전공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정립해 체계화하고 포장업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김기범 차장은 다층 장기보존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인 (주)이생에서 기능성 연포장 분야와 의료용 필름사업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포장기술사로써 업체의 실무경험과 학계의 연구를 더해 체계적인 포장기술을 차근차근 정립해 포장업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장기술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앞으로 포장기술사의 한 사람으로써 포장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김기범 차장의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다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ko

>>>

공급·유통 업체와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일조할 터

장기적인 포장산업 플랜 및 비전 제시 필요

안 경 완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차장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나 훌륭하신 많은 분들에게는 송구스럽습니다. 더욱 배우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안경완 차장은 포장실무를 담당하면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포장학문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 포장기술사에 응시한 결과 제67회 포장기술사의 대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지난 20년간 두유 및 우유 제조회사에서 공장기획 및 생산관리 분야를 담당해 온 안 차장은 포장설비와 신제품 개발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서 포장에 관심을 쏟게 된다.

"포장은 그 적용의 광범위성으로 재료에서 완제품 및 디자인, 대상설비, 운반, 수송에 이르기까지 종합 예술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예술학문인 포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것이 포장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동안 안 차장은 식품포장과 관련해 살균 및 멸균포장의 실무를 맡아왔으며 현재, 농협중앙회 농협사료에서 생산, 환경공무관리자로서 원부재료 검수 업무 및 생산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농협사료는 1일 40,000매(25킬로) 정도의 크라프트 지대로 가축 사료를 생산하고 로봇 자동적재 방식 사용하고 있다.

"포장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시사문제에 대비했다"고 밝힌 그는 시험 출제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일부분은 깊은 지식까지도 요구해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포장 관련 대학의 커리큘럼 부재와 포장 관련 학술 자료의 부족함을 보면서 포장 인력의 학사과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포장관련 업계의 영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기금 확보도 병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실무이상으로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차장은 END-USER로서 뿐만이 아닌 공급·유통 업체와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 및 공조에 앞장서 포장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체, 단체, 정부가 한마음으로 포장 산업의 장기적인 플랜과 비젼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포장관련 중앙 연구소와 분석시험 기관의 설립을 통해 도약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안경완 포장기술사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o

2003 포장기술사

>>>

포장인들간 동호회 및 정보 교류 활발기대

무톨루엔 잉크 개발에 주력할 터

이 광 명
(주)아이팩 생산팀 팀장

"(주)아이팩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종사해온 부분에 도전했고, 그 결실을 이뤘다는데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포장 기술사 합격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주시고 축하해 준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90년 (주)아이팩에 입사, 그간 생산 및 개발, 품질관리 업무를 두루 접했고 현재 2년차 생산팀 팀장으로 연포장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연포장 분야뿐 아닌 포장학 전체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는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표현한다.

동종 업계에 있는 포장맨들과의 동호회와 지역별 모임,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 때로는 간접경험을 통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 팀장은 앞으로도 소규모라도 실무자들의 모임을 통해 포장인들간의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장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지금에야 비로소 '포장'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겸손함을 보이는 이 팀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파우치와 김치 포장의 특허 출원을 통해 다양한 포장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광명 팀장은 국내 포장산업을 바라보면서 개발되는 신규 아이템이 희박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환경을 고려한 동시에 소비자들이 쉽게 쓸쑤 있는 아이템 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명 팀장은 완전 무톨루엔 타입의 잉크를 포장재에 적용하고 수성 그라비어 잉크를 개발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팀장은 현재 산자부의 신(新)포장지 개발 자금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할 뿐더러 단시일내에 결과물을 제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포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배려와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인재개발 부문 투자가 미약한 것도 안타깝다며 포장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젊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나가길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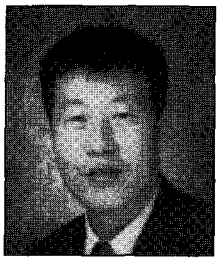
앞으로 이 팀장은 10여년 전 포장업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후배 포장인들을 보며 기술을 개방하고 이끌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 무톨루엔 잉크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거듭 밝히는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국내 포장산업의 향후을 느낄수 있었다. ko

>>>

Packaging 인식 및 전문가적 정책 조율 필요

열접착필름 수출 및 품질경쟁력에 주력 할 터



이 준 우
(주)아이팩 개발팀 팀장

(주)아이팩 개발팀 이준우 팀장은 '포장기술사' 라는 권위를 인정받기보다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해보고자 제67회 포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엔지니어라면 담당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기술인의 자존심입니다. 포장기술사 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지도해주신 포장관련 업계 선배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0년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스낵류, 비스킷류, 파이류, 수출연포장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식품포장재 전문 업체 (주)아이팩에 입사, 생산부 근무를 시작으로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동안 이준우 팀장은 COLD-SEAL 접착제 식품포장재를 국산화 적용하고 식품포장재 잔류용제를 개선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96년에는 열접착 필름(Thermal Laminating Film)을 개발하고 박막화를 통한 국산 개발을 하기에 이른다.

현재 이 팀장은 개발팀장으로 사내 품질과 개발업무를 통합 · 관장하고 내수 및 수출품의 품질개선, 원가절감, 원부재료 개선, 신소재의 적용, 신제품의 개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이 팀장은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연포장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식이 짧았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겸손하게 밝힌다.

이준우 팀장은 소비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포장이 여전히 보호의 개념 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소비자의 패턴도 지나친 개인주의나 상업주의보다는 포장의 사회성에 입각하여 변해야 합니다. 포장산업이 과거에 양적인 팽창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 개선을 지향하고 Packaging의 중요성을 사회전반에 널리 알려 포장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문가적인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는 국내에 포장 학과가 시대의 변화에 늦어 연혁은 깊지 않지만 그들의 포장업계 진출에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 팀장은 열접착필름(Thermal Laminating Film)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세계 유수메이커와 당당히 품질경쟁 및 제품 업그레이드에 주력해 타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응용, 포장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포장기술사 합격을 통해 포장맨인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포장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희망동산을 보았다는 이준우 포장기술사. 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포장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o